Save the Elephants



이야기 소개

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'육상 생명(Life on land)'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어미 없이 남겨진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 될까요?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 돌봄을 받고, 언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까요?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코끼리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이 책을 읽는 팁

이 책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

- 아이는 파닉스 실력을 이용해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단어를 만나면 소리를 하나씩 내어 읽고,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.

- 다음 단어들은 자주 쓰이지만, 아이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:
  two water because many
  책을 읽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이 단어들을 읽어 보세요. 책을 읽다가 이 단어들이 나오면, 필요에 따라 부모님이 먼저 읽어 주셔도 괜찮습니다.

읽기 전에

- 앞표지를 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이 사진은 행복한 사진인 것 같나요, 슬픈 사진인 것 같나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
- 아이가 제목을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질문: 코끼리는 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? (예: 사람들이 코끼리를 사냥하고, 코끼리가 사는 곳을 파괴하기 때문에)

- 아이가 뒷표지를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질문: 대부분의 엄마는 아기에게 무엇을 줄까요? (예: 모유, 보살핌, 사랑, 안전)

  질문: 아기 코끼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?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
- 목차(1페이지)를 보며 이렇게 말해 주세요: 이 목록은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려 줘요.

  아이가 목록을 읽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  질문: 무엇에 대해 가장 알아보고 싶나요?

읽는 동안

- 아이가 이야기를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. 단어를 읽다가 머뭇거리면, 소리를 하나씩 읽은 뒤 이어서 하나의 단어로 읽도록 격려해 주세요. 예를 들어 r-e-s-c-ue를 읽은 뒤 rescue이라고 읽어 보도록 해 주세요.

- 2 페이지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'tusks'라는 단어는 왜 굵게 표시되어 있을까요? (23페이지의 용어 풀이(glossary)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)

- 2 페이지의 지도를 보며 이렇게 말해 주세요: 이 지도는 아프리카 대륙을 보여주고 있어요.

  질문: 지도에서 케냐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(이름표와 화살표)

- 9 페이지를 읽은 뒤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사람들은 왜 보호 단체에서 돌보고 있는 코끼리를 보러 갈까요? (예: 코끼리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, 코끼리를 보기 위해)

- 14 페이지까지 읽은 뒤 멈추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: 코끼리는 상아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요.

그리고 아이에게 상아의 쓰임 두 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해 주세요.
(예: 나무껍질을 벗기기, 싸울 때 사용하기)

- 18 페이지를 읽은 뒤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: 코끼리는 어떻게 새로운 식물이 자라도록 도와줄까요?

읽은 후

- 질문: 사육사의 일 가운데 어떤 일을 가장 해 보고 싶나요?
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?

- 질문: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코끼리에게 의지하며 살아갈까요?

- 질문: 코끼리들은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
  사육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

- 질문: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?

- 24 페이지의 스토리맵에 있는 그림을 함께 살펴보세요. 그림을 활용해 아이가 자신의 말로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.

[Save the Elephants]	
Kenya	Tusks
The keeper	Adult elephant
Blanket	Dung
Roam about	Dung beetle
Keeper speaking to visitors	"Donate here"
The visitors	Thank you for adopting a baby elephant.
An elephant herd	Help save elephants
Trunks	

Save the Elephants



Level 6 Non-Fiction

Save the Elephants (코끼리를 구해요)

이야기 소개

이 이야기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5번 '육상 생명(Life on land)'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어미 없이 남겨진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 될까요?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 돌봄을 받고, 언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까요?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코끼리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□ P2: 구조

케냐에는 혼자 남겨진 아기 코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.

상아를 팔기 위해 그들의 어미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.

코끼리 보호 단체들은 남겨진 아기 코끼리들을 구조합니다.

□ P3: 이 단체들은 아기 코끼리들을 돌봅니다.

그들이 더 자라면,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

□ P4: 그 자선 단체들은 코끼리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그 보육원에서 사육사들은 오랫동안 코끼리들을 돌봅니다.

□ P5: 아기 코끼리들은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더 강해집니다.

사육사들:

- 아기 코끼리들에게 우유를 먹입니다.
- 그들에게 담요을 덮어 줍니다.
- 그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잡니다.

□ P6: 자라면서

조금 더 자라면 아기 코끼리들은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.

그들은 서로 놀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.

□ P7: 이제 그들은 이가 나서 긴 풀을 잘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.

그들은 진흙 목욕하는 방법도 배웁니다!

아기 코끼리들은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.

□ P8: 사육사들은 항상 코끼리들과 함께 있습니다.

그들은 코끼리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햇볕으로부터 지켜줍니다!

□ P9: 자선 단체에서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러 오도록 초대합니다.

방문객들은 구조 활동에 대해 배웁니다.

그들은 코끼리들이 어떻게 살고 자라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.

□ P10: 야생으로 돌아가기

코끼리들이 조금 더 자라면, 자선 단체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.

□ P11: 코끼리들이 새로운 곳을 살펴봅니다.

친구들과 함께 곧 무리에 합류합니다.

어른 코끼리들이 무리에 잘 어울리도록 도와줍니다.

□ P12: 코끼리의 생활

코끼리들은 무리 속에서 놉니다.

코끼리들은 소리를 내거나 코를 톡톡 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.

□ P13: 코끼리들은 풀, 잎, 나무 껍질, 작은 가지를 먹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.

이 코끼리는 상아로 나무껍질을 긁어내고 있습니다.

□ P14: 상아는 다른 방법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

이 코끼리는 길을 막는 나뭇가지를 들어 치웁니다.

이 두 코끼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
그들은 필요하면 상아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.

□ P15: 이 코끼리는 물을 얻기 위해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.

코끼리들이 어른이 되면, 암컷 코끼리들은 자기 새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.

□ P16: 함께 살아가기

(동물과 식물 같은) 생물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.

이 코끼리는 몸집이 커서 넓은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다른 많은 동물들도 이 길을 사용할 것입니다.

□ P17: 이 연못은 코끼리의 큰 발로 만들어졌습니다.

개구리와 곤충들이 그 연못을 이용합니다.

□ P18: 코끼리의 배설물에는 코끼리가 먹은 식물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.

씨앗이 퍼지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납니다.

□ P19: 곤충들은 배설물을 먹고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.

이것은 곤충들이 번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동물과 식물은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.

□ P20: 자선 단체가 기금을 모으도록 돕기

- 사람들은 자선 단체들의 웹사이트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.

□ P21: • 요금을 내면 사람들은 아기 코끼리를 '입양'할 수 있습니다.

이것은 친구에게 줄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자선 단체에서 아기 코끼리의 성장 소식을 보내줍니다.

□ P22: • 사람들은 자선 단체의 온라인 상점에서 필통, 메모장, 코끼리 티셔츠 같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.

- 사람들은 케이크 판매나 공원 달리기 같은 행사를 열 수도 있습니다.

□ P23: 용어 설명

자선 단체: 사람이나 동물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는 단체

똥: 동물의 배설물

무리: 코끼리 한 무리

사육사: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

보육원: 아기 코끼리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

상아: 입에서 길게 튀어나온 뾰족한 이

찾아보기

charities(자선 단체)……2, 3, 4, 9, 10, 20, 21, 22
keepers(사육사)……4, 5, 8
nurseries(보호소)……4
rescue(구조)……2, 9
tusks(코끼리 상아)……2, 13, 14
wild(야생)……3, 10

□ P24: 무엇을 배웠나요?